

3월 26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3월 26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 하루만에 반등 [다우: 7,749.81pt (+1.17%)]	주요 지수가 일제히 1%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25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하루만에 반등했음. 경제지표가 잇달아 월가 전망을 넘어서면서 모멘텀 소진으로 주춤했던 랠리가 재개됐음. 미국의 2월 내구재 주문은 7개월만에 깜짝 증가세를 나타냈고, 신규주택 판매도 전망보다 큰 폭으로 늘어 `주택시장 바닥론`에 무게를 실었음. 주요 지수는 오후 들어 재무부의 국채 입찰이 부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부양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조달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권으로 떨어졌으나 장 막판 극적으로 반등했음.
2월 신규주택판매 증가	신규주택 판매는 사상 최저치에서 반등했음. 거둬들인 주택가격의 추락과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됨. 상무부는 2월 신규주택 판매가 연율 33만 7,000채(계절조정)로 전월대비 4.7% 증가했다고 밝혔음. 이는 월가 전망치도 상회한 수준. 마켓워치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32만 3,000채를 넘어섰음.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망치는 30만채로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었음.
국채입찰 부진	미국 재무부가 진행한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채수익률은 급등했음. 이로 인해 미국의 경기부양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었음. 이날 진행된 340억달러 규모의 국채 5년물 입찰에서 낙찰 금리는 1.849%를 기록했고, 이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예상치인 1.801%를 훨씬 웃도는 수준임. 입찰 경쟁률도 2.02대 1로 종전 10차례 평균 2.18대 1에 훨씬 못미쳤음.
유가 하락 [WTI: \$52.77 (-\$1.21)]	원유 재고가 16년만에 최대치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유가 하락의 배경으로 작용했음.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주(20일 마감) 원유 재고가 전주대비 330만배럴 증가했다고 밝혔고, 이는 지난 1993년 7월 이후 최대치로 에너지 정보 제공업체 플랫츠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140만배럴을 훨씬 넘어선 증가폭임.
IMF, 루마니아에 200억유로 지원 합의	루마니아와 국제통화기금(IMF)이 200억유로(약 270억달러) 규모의 IMF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 보도. 협상안에 따르면 IMF가 130억유로를 출자하고, EU(유럽연합), 세계은행, 유럽개발은행 등이 나머지 자금을 지원.

제목	주요 내용
한-EU FTA 임박..경제 효과는?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이 임박. 4억 9,000만명의 소비자, GDP 14조9,000억달러, 연간 수입 규모 4조 6,000억달러의 최대 시장이 한국 기업에 개방돼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전망. 코트라(KOTRA)는 25일 EU 20개국의 현지 주요기업과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수혜 품목 등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동차·섬유 및 의류·전자제품 군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라고 발표.
경제위기 북·동유럽 '도미노 정권붕괴' 위기	체코 의회는 24일(현지시간) 표결에서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 체코의 경우 타지역과의 온도 차이는 있지만 정권이 붕괴된 유럽권내 4번째 국가. 체코에 앞서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벨기에의 정권이 교체. 특히 외환위기의 한가운데 놓인 동유럽국들의 정정불안은 극심. 헝가리의 페렌츠 주르차니 총리는 지난 20일 퇴진 의사를 밝혔지만 후임 총리에 나서는 후보가 없어 행정 공백이 우려.
IMF "새 기축통화 논의 적절..다소 시간은 소요될 것"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총재는 "새 기축통화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적절하며 앞으로 수개월 내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언급. 최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 총재는 "IMF의 특별인출권(SDR)을 초국가적 기축통화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IMF의 SDR은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등의 통화바스켓을 기반.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반박. 버락 오바마 대통령,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벤 S.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 모두 중국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불쾌한 입장을 표명.
BOJ 부총재 "금리인하 가능성 배제 못해"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인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 보도. 야마구치 히로히데 일본은행 부총재는 이날 "현재 0.1%인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
日 무역활동 '반토막'... 빛바랜 흑자	일본 재무성이 25일 발표한 2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49.4% 감소한 3조5,255억엔을 기록. 수출액이 4개월 연속 사상 최대폭으로 감소하면서 예년의 절반 수준. 최대 해외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58.4% 감소. 특히 자동차 수출은 '엔고 한파'로 인해 70.9%나 급감.
日 "美 국채 투자 지속"	2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요사노 가오루 일본 재무상은 "일본 정부는 미 국채 매입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여력이 없다"며 이같이 발표. 이같은 발언은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유동성 투입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달러화 과잉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